

한국의 대중국 교역 동향과 시사점

이 승 신 세계지역연구센터 중국팀 부연구위원 (sslee@kiep.go.kr, Tel: 3460-1235)
양 평 섭 북경사무소 소장 (psyang@kiep.go.kr, Tel: 86-10-8497-2870)

1. 한국의 대중국 교역 추이
2. 대중국 수출 증가율 변화 품목과 가공단계별 교역구조
3. 한국의 대중국 수출 급감 요인
4. 시사점

주요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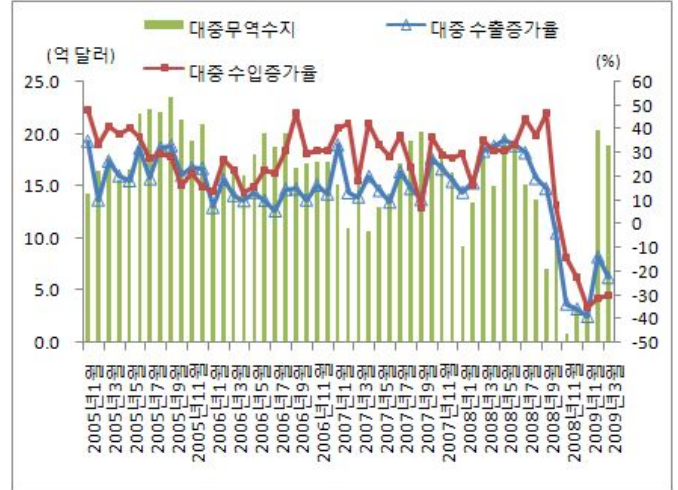
- ▶ 2008년 한국의 대중국 무역수지는 전년대비 45억 달러 (-23.7%) 감소한 145억 달러로, 2005년을 정점으로 3년 연속 감소세를 기록함.
- 이는 2008년 10월부터 한국의 대중국 수출이 감소 (-3.5%)하기 시작하여 지속적인 감소세를 보이고 있는 데 기인하며, 2009년 들어서도 1월 -38.6%, 2월 -13.4%, 3월 -22.2%의 마이너스 성장세를 보이고 있음.
- ▶ 한국의 대중국 수출 둔화는 중국정부의 무역규제정책(가공 무역규제, 수출규제정책), 위안화 평가절상, 선진국 경기 위축, 중국 내 수입대체 가속화, 현지 한국 및 외자 기업의 생산과 수출 위축 등 복합적인 요인에 기인함.
- ▶ 2008년도 한국의 대중국 수출품목의 77.8%가 중간재임을 감안할 때 중국의 수출 감소는 곧 한국의 대중국 수출 감소를 초래하며, 중국의 대세계 수출과 한국의 대중국 수출 증가율을 월별로 비교해보면 10월부터 그 추이가 일치함을 알 수 있음.
- ▶ 단, 2009년 2월 들어 중국의 수출 증가율 감소는 지속적으로 확대된 반면 수입증가율의 감소세는 대폭 완화되었는데, 그 중 우리나라에 대한 수입 감소세도 2008년 12월 -30%, 2009년 1월 -46.4%에서 2월과 3월에는 각각 -20.4%, -19.5%로 대폭 완화됨.
- 이는 작년 12월부터 중국의 내수부양과 관련된 제품군을 위주로 대중국 수출이 증가하기 시작한 데 따른 것으로 보임.
- ▶ 선진국의 경기침체로 인해 금년 안에 중국의 수출이 회복세로 전환될 가능성이 불확실함에 따라, 단기적으로는 중국의 내수경기 부양책에 맞춘 대중국 수출마케팅 강화가 필요하며, 중장기적으로는 중국의 수입대체에 따른 대중국 수출 둔화 가능성에 대비하여야 할 것임.
- 그 외, 세계경기 불황에 따른 중국기업의 도산 및 경영악화로 인해 중국 내에서도 보호무역주의 경향이 확산됨에 따른 한·중 간 무역마찰 증대 가능성에 대비할 필요가 있음.

1. 한국의 대중국 교역 추이

가. 한국의 대중국 교역 동향

- 2008년 한국의 대중국 수출은 전년대비 11.5% 증가한 914억 달러, 수입은 22.1% 증가한 796억 달러로, 한국의 대중국 무역수지는 전년대비 45억 달러(-23.7%) 감소한 145억 달러로 나타나 2005년을 정점으로 3년 연속 감소세를 기록함.
- 2008년 중국에 대한 수출 비중은 21.7%이며, 2008년 한국의 전체 무역수지가 -133억 달러 적자로 전환된 반면 중국에 대한 무역수지는 145억 달러 흑자로서 2005년부터 대중 무역수지가 한국의 전체 무역수지를 상회하는 구조를 유지하고 있음.
 - 중국은 2003년에 미국을 제치고 우리나라의 최대 수출대상국으로 부상하였으며, 2005년 이래 줄곧 20% 이상의 높은 수출점유율을 보이고 있음.
- 한국의 대중 수출 및 수입은 2008년 4/4분기에 각각 -23.9%, -9.3%의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하며 무역흑자가 전년동기대비 38.6억 달러(-72.8%) 감소하였음.
- 이는 2008년 10월부터 한국의 대중국 수출이 감소(-3.5%)하기 시작하여 11월 -33.3%, 12월 -35.4%의 지속적인 감소세를 보이고 있는 데 기인하며, 2009년 들어서도 1월 -38.6%, 2월 -13.6%, 3월 -22.2%의 마이너스 성장세를 보임(그림 1, 표 8 참고).
 - 중국에 대한 수입증가율도 10월부터 둔화되기 시작하다가 11월에는 -14.2%, 12월에는 -22.6%, 2009년 1월 -35.0%, 2월 -30.9%, 3월 -29.8%의 감소세를 보임(그림 1, 표 8 참고).

그림 1. 한국의 월별 대중국 교역 추이



자료: kita.net 한국무역통계를 이용하여 작성.

나. 한·중 간 주요 교역품목

- 2008년 한국의 수출은 전년대비 59.6%포인트 증가한 석유제품(63.5%)의 수출 확대가 전체 수출 증가를 주도했으며, 그 외 합성수지, 석유화학 합성원료, 철강판 등이 수출 호조품목임.
 - 반도체(-5.7%)와 컴퓨터(-30%)는 2008년 수출증가율이 감소세로 전환됨.
 - 그 외, 평판디스플레이 및 센서, 무선통신기기, 석유화학 중간원료 등은 증가율이 대폭 둔화됨.
- 2009년 1~3월 한국의 대중국 수출은 전년동기대비 25.1% 감소했으며, MTI 3단위 기준 10대 대중국 수출품목 중 평판디스플레이 및 센서(26.8%)를 제외한 모든 품목의 수출이 감소함(표 2 참고).
 - 특히 반도체(-37.4%), 석유제품(-40.1%), 컴퓨터(-57.4%), 석유화학 중간원료(-46.8%)는 약 40~50%대의 높은 감소율을 기록함.

표 1. 한국의 대중국 교역 추이

		(단위 억 달러, %)											
	연도	1992	1995	2000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1~3월	
전체수출	금액	766.3	1,250.6	1,722.7	1,624.7	1,938.2	2,538.5	2,844.2	3,254.7	3,714.9	4,220.1	747.1	
	증가율	164.7	47.4	34.9	30.6	47.8	41.7	24.4	12.2	18.0	11.5	-25.1	
대중수출	금액	26.5	91.4	184.6	237.5	351.1	497.6	619.2	694.6	819.9	913.9	165.2	
	증가율	164.7	47.4	34.9	30.6	47.8	41.7	24.4	12.2	18.0	11.5	-25.1	
전체수입	금액	817.8	1,351.2	1,604.8	1,521.3	1,788.3	2,244.6	2,612.4	3,093.8	3,568.5	4,352.8	711.8	
	증가율	8.3	35.5	44.3	30.8	25.9	35	30.6	25.6	29.8	22.1	-31.9	
대중수입	금액	37.3	74.0	128.0	174.0	219.1	295.9	386.5	485.6	630.3	769.3	122.4	
	증가율	8.3	35.5	44.3	30.8	25.9	35	30.6	25.6	29.8	22.1	-31.9	
전체수지	금액	-51.4	-100.6	117.9	103.4	149.9	293.8	231.8	160.8	146.4	-132.7	35.3	
	증가율	-10.7	17.4	56.6	63.5	132.0	201.8	232.7	209.0	189.6	144.6	42.8	

자료: kita.net 한국무역통계.

표 2. 한국의 대중국 주요 수출품목

(단위: 백만 달러, %)

순 위	품목명	2008년		2009년(1~3월)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총계	91,389	11.5	16,518	-25.1
1	평판디스플레이 및 센서	7,058	20.3	2,221	26.8
2	무선통신기기	6,484	14.1	1,373	-7.1
3	반도체	8,729	-5.7	1,332	-37.4
4	합성수지	5,333	16.9	1,189	-7.5
5	석유제품	8,517	63.5	955	-40.1
6	철강판	2,996	23.0	673	-2.8
7	석유화학합성원료	3,381	14.3	612	-31.4
8	컴퓨터	4,148	-30.0	573	-57.4
9	자동차부품	1,945	-15.0	433	-27.2
10	석유화학중간원료	2,838	0.4	412	-46.8

주: MTI 3단위 기준.

자료: kita.net 한국무역통계.

■ 2008년 한국의 대중국 수입은 철강판, 석탄, 레일 및 철구조물, 선박해양 구조물 및 부품 등이 대폭 증가하였고, 반도체, 정밀화학원료 등도 증가세를 유지함.

- 그러나 평판디스플레이 및 센서는 증가폭이 대폭 둔화되었으며, 의류는 감소세로 전환됨.

■ 2009년 1~3월 한국의 대중국 수입은 전년동기대비 31.9% 감소했으며, MTI 3단위 기준 10대 대중국 수입품목 중 레일 및 철구조물(50.6%), 선박해양 구조물 및 부품(91.9%)을 제외한 모든 품목의 수입이 감소함.

표 3. 한국의 대중국 주요 수입품목

(단위: 백만 달러, %)

순 위	품목명	2008		2009(1월~3월)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총계	76,930	22.1	12,239	-31.9
1	철강판	9,622	116.9	1,154	-36.1
2	컴퓨터	4,858	0.2	988	-33.3
3	반도체	5,864	39.3	967	-26.3
4	평판디스플레이 및 센서	3,391	32.7	732	-6.9
5	의류	3,078	-6.3	519	-32.8
6	무선통신기기	2,185	20.3	367	-22.6
7	석탄	2,815	74.3	338	-7.5
8	레일 및 철구조물	950	98.8	324	50.6
9	정밀화학원료	2,057	37.2	289	-37.4
10	선박해양구조물 및 부품	774	128.2	283	91.9

주: MTI 3단위 기준.

자료: kita.net 한국무역통계.

2. 최근 대중국 수출증가율 변화 품목과 가공단계별 교역 구조

가. 최근 대중국 수출증가율 변화 품목

■ 한국의 중국에 대한 수출 급감품목을 찾기 위해 월별 수출품목을 분석한 결과, 2008년 10월부터 수출증가율 감소품목이 증가하기 시작함.

- MTI 3단위 기준, 1~50위까지 대중국 수출품목을 분석한 결과, 10월부터 감소하기 시작한 주요 수출품목이 11월, 12월에는 대부분 급감하였음.

- 1~50위 품목: 2008년 10월 중 18개, 11월에는 35개, 12월에는 30개, 2009년 1월에는 31 품목이 감소세로 전환되었으나 2월에는 25개로 감소품목이 줄었으며,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는 품목이 15개로 이전 3개월보다 2배 이상 증가함.

- 3월 들어 감소세로 전환된 품목이 전월대비 늘었으나,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는 품목은 10개로서 지난해 말보다 상황이 호전된 것으로 보임.

표 4. 한국의 대중 수출증가율 변화 품목(상위 50위)

	감소세로 전환	증가세유지(A)	감소→증가세로 전환(B)	(A)+(B): 증가세
2008년 10월	18(20)개	24개	6개	30개
2008년 11월	35(44)개	5개	1개	6개
2008년 12월	30(43)개	3개	4개	7개
2009년 1월	31(43)개	2개	5개	7개
2009년 2월	25(35)개	13개	2개	15개
2009년 3월	35(40)개	7개	3개	10개

주: 1) MTI 3단위 기준으로 상위 50위 품목.

2) () 안의 수치는 기존 마이너스 증가율인 품목을 포함한 것임.

자료: kita.net 한국무역통계를 이용하여 작성.

■ 12월부터 중국에 대한 수출이 새로이 증가하기 시작한 품목은 MTI 790 기타 기계류, MTI 436 편직물, MTI 751 기계요소, MTI 619 강반제품 및 기타 철강제품, MTI 726 압연기, 용접기 및 주조설비 등임.

- 이들 품목은 수출 부가가치세 환급률을 인상한 섬유제품류인 편직물, 그리고 기계류 제품과 기계부품류, 철강 중간재 제품들로서, 내수부양의 기대 및 재고 정리에 따른 수요 증가로 추정됨.

■ 2009년 3월까지 4개월 연속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는 품목은 MTI 746 선박해양 구조물 및 부품, 617 주단조품, 436 편직물 등이 있으며, 2월부터 연속 2개월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는 품목은 MTI 836 평판디스플레이 및 센서, 614 철강관 및 철강선, 753 금형 등이 있음.

- 특히 MTI 3단위 기준 우리나라 대중 수출 1위 품목인 MTI 836 평판디스플레이 및 센서의 수출이 12월(-44%), 1월(-10%)의 감소세에서 2월과 3월에 증가율이 각각 43.2%, 48.9%로 급증함.
- 이는 중국의 가전하향(家電下鄉) 정책¹⁾으로 인한 LCD 부품 수요 증가에 따른 것으로 보임.

- * MTI 746 선박해양 구조물 및 부품은 HS 8902001020, 8902001090의 어선, HS 8905908000 기타 선박, HS 8907909000 해양구조물, HS 8408101000, 8408103000, 8409993020, 8409933030의 선박용 압축점화식 엔진, HS 8413303000, 8426991000의 선박용 부품에 해당
- * MTI 617 주단조품은 HS 7307221000, 7307229000, 7307230000, 7307910000, 7307991000, 7325992000의 주강(casting steel), HS 7326999000, 7326909000의 기타 주철로 철 및 스테인레스로 만들어진 용접 연결구, 나선 가공한 슬리브 등 부품에 해당

- 2008년 12월부터 금년 3월까지 평판디스플레이 및 센서, 기타 기계류, 주단조품, 회전기기, 강반제품 및 기타 철강제품 등의 중국 내수부양 관련 품목의 수출이 증가세를 보이고 있음.

표 5. 최근 4개월 대중 수출 호조품목

2008년 12월	MTI 746 선박해양 구조물 및 부품, 790 기타 기계류, 436 편직물, 617 주단조품, 751 기계요소, 619 강반제품 및 기타 철강제품, 726 압연기, 용접기 및 구조설비 (7개)
2009년 1월	MTI 211 기초유분, 746 선박해양 구조물 및 부품, 617 주단조품, 726 압연기용접기 및 구조설비, 619 강반제품 및 기타 철강제품, 841 회전기기, 811 유선통신기기 (7개)
2009년 2월	MTI 836 평판디스플레이 및 센서, 812 무선통신기기, 746 선박해양 구조물 및 부품, 790 기타 기계류, 215 합성고무, 617 주단조품, 436 편직물, 815 계측제어분석기, 833 수동부품, 614 철강관 및 철강선, 753 금형, 626 아연제품, 434 인조장섬유, 811 유선통신기기, 736 평판디스플레이 제조용 장비 (15개)
2009년 3월	MTI 836 평판디스플레이 및 센서, 613 철강관, MTI 746 선박해양 구조물 및 부품, 835 건전지 및 축전지, 219 기타 석유화학제품, 617 주단조품, 436 편직물, 753 금형, 614 철강관, 841 회전기기 (10개)

주: MTI 3단위 기준으로 상위 50위 품목 중에서 선별함.
 자료: kita.net 한국무역통계를 이용하여 작성.

- 글로벌 금융위기와 관계없이 중국시장에서 선전하고 있는 품목은 MTI 746 선박해양 구조물 및 부품, MTI 617 주단조품임.

- 중국 현지 STX 조선, 중국 조선사 등의 조업에 필요한 선박 구조물 및 부품 공급과 고부가가치 철강제품의 수출이 꾸준히 이어져온 것으로 보임.

1) 가전하향(家電下鄉) 정책은 중국정부가 농촌의 가전제품 소비 확대를 위해 농업비중이 높고 인구가 많은 3개 省(산둥(山東), 허난(河南), 쓰촨(四川))의 농민을 대상으로 2007년 12월부터 2008년 5월까지 시범적으로 시행해오던 정책임. 중국정부는 경기부양책의 일환으로 이를 2009년 2월 1일부터 4년간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하기로 함. 농민이 가전하향에 해당되는 가전제품(컬러TV, 냉장고, 휴대폰, 컴퓨터, 온수기, 에어컨, 전자레인지, 전자조리기 등)을 구매하는 경우 정부로부터 상품판매가의 13%에 해당하는 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있음.

표 6. 중국 내수부양과 관련하여 대중 수출이 증가한 품목

(단위: 백만 달러, %)

품목코드	품목명	2007년 12월 ~ 2008년 3월	2008년 12월 ~ 2009년 3월	
		금액	금액	증가율
836	평판디스플레이 및 센서	2,412	2,577	6.8
746	선박해양 구조물 및 부품	246	429	74.4
790	기타 기계류	305	318	4.3
617	주단조품	99	155	56.6
841	회전기기	62	72	16.1
619	강반제품 및 기타 철강제품	4	51	1175.0

주: MTI 3단위 기준.
 자료: kita.net 한국무역통계를 이용하여 작성.

나. 가공단계별 대중국 교역구조

- 2008년도 한국의 대중국 수출품목을 가공단계별로 구분하면 전체 대중국 수출의 77.8%가 부품 및 부분품, 산업용 원자재, 연료 및 유탄유 등 중간재이며, 최종재는 21.3%에 불과함.
- 최종재 21.3%는 자본재가 18.5%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내구 및 비내구 소비재가 2.4%, 음식료품이 0.5%로 구성되어 있음.

- 2008년 한국의 대중국 수출에서 부품 및 부분품(전년대비 7.8% 증가), 산업용 원자재(동 9.7% 증가), 자본재(동 6.0% 증가)의 수출은 부진했던 반면, 산업용 연료 및 유탄유의 대중국 수출은 유가상승 요인으로 인해 64%의 높은 증가율을 유지하면서 대중국 수출 증가를 견인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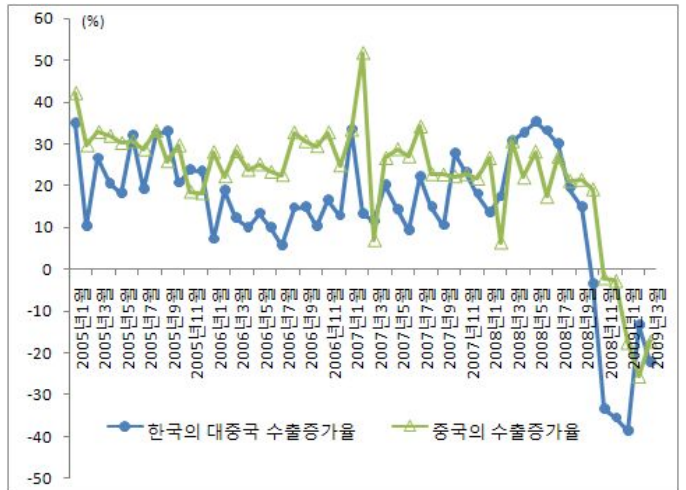
표 7. 가공단계별 대중국 수출입

(단위: 억 달러)

가공단계	대중국 수출			대중국 수입			구성(2008년,%)		
	2007	2008	증가율 (%)	2007	2008	증가율 (%)	수출	수입	
전 체	819.9	913.9	11.5	630.3	769.3	22.1	100.0	100.0	
일 차 상 품	6.8	8.0	18.5	39.0	45.9	17.8	0.9	6.0	
중 간 재	소 계	629.8	710.9	12.9	379.5	489.4	29.0	77.8	63.6
	부품 및 부분품	291.5	314.3	7.8	134.0	159.4	19.0	34.4	20.7
	산업용 원자재	291.0	319.2	9.7	237.5	318.4	34.1	34.9	41.4
	연료 및 운할유	47.2	77.5	64.0	8.1	11.6	44.1	8.5	1.5
최 종 재	소 계	183.2	194.9	6.4	211.6	233.7	10.5	21.3	30.4
	내구 소비재	16.4	17.4	6.4	64.1	62.4	-2.7	1.9	8.1
	비내구 소비재	3.9	4.4	13.6	10.7	11.4	7.5	0.5	1.5
	음식료품	3.8	4.3	13.0	20.1	19.3	-4.0	0.5	2.5
자본재	159.2	168.8	6.0	116.8	140.6	20.4	18.5	18.3	

자료: 한국무역협회 자료를 이용하여 작성.

그림 2. 중국의 대세계 수출 VS. 한국의 대중국 수출 증가율 추이



자료: kita.net 한국무역통계를 이용하여 작성.

3. 한국의 대중국 수출 급감 요인

- 한국의 대중국 수출 둔화는 중국정부의 무역규제정책(가공무역규제, 수출규제정책), 위안화 절상, 선진국 경기 위축, 중국 내 수입대체 추진 등 복합적인 요인에 기인함.
- 중국정부가 2006년 하반기 이후 무역규제정책(가공무역규제, 수출규제정책)을 추진하면서 중국의 수출이 위축되고, 이에 따라 수출용 중간재 수입이 둔화됨.
- 4/4분기 이후 국제 금융위기가 중국의 수출을 위축시키고, 중국 내 소비심리를 위축시키면서 국내 소비 및 산업생산 둔화로 이어지고 있으며, 이로 인해 중국의 소비재 및 중간재 수입 둔화가 가속화됨.
- 재중 한국기업의 경영여건 악화로 한국의 대중국 투자와 중국 내 한국계 기업의 생산 및 수출이 위축됨에 따라 기업내무역(intra-firm trade)도 위축됨.
- 또한 중국이 수입의존적 수출 구조를 탈피하면서 수출용 중간재 수입이 둔화됨.

가. 글로벌 경기 악화에 따른 중국의 수출 감소

- 2008년도 한국의 대중국 수출품목의 77.8%가 중간재임을 감안할 때 중국의 수출 감소는 곧 한국의 대중국 수출 감소를 초래함.
- 중국의 대세계 수출과 한국의 대중국 수출 증가율을 월별로 비교해보면 2008년 10월부터 그 추이가 일치함을 알 수 있음.

- 단, 2009년 들어 3개월간 중국의 수출증가율은 지속적인 감소세를 유지하고 있는 반면, 2월과 3월 중국의 수입증가율은 감소폭이 1월보다 대폭 축소되었음(표 7 참고).

- 그 중 우리나라에 대한 수입감소율도 2008년 12월 -30%, 1월 -46.6%에서 2월과 3월에 각각 -20.4%, -19.5%로 완화됨.
- 이에 따라 한국통계 기준으로 본 우리나라의 대중국 수출도 1월 -38.6%에서 2월, 3월에는 각각 -13.4%, -22.2%로 감소 정도가 둔화됨.

표 8. 한국의 대중 수출입 증가율 · 중국의 수출입 증가율 추이

	2008년					2009년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대중 수출	19.3	15.0	-3.5	-33.3	-35.4	-38.6	-13.4	-22.2
대중 수입	37.3	47.2	8.4	-14.2	-22.6	-35.0	-30.9	-29.8
중국 수출	21.1	21.4	19.1	-2.2	-2.8	-17.6	-25.7	-17.3
중국 수입	22.9	20.4	15.4	-17.9	-21.3	-43.3	-24.1	-25.2
중국의 대한국 수입	10.2	8.2	4.9	-30.2	-30.0	-46.6	-20.4	-19.5

자료: 한국무역협회 한국통계, 중국해관 자료를 이용하여 작성.

- 이는 최근 3개월간 우리의 대중국 수출이 내수시장을 겨냥한 제품군을 위주로 증가하였음을 반증하고 있음.
- 2008년 12월부터 새로이 증가하기 시작한 수출품목들이 중국의 내수부양을 위해 실시하고 있는 SOC 건설 및 가전하향(家電下鄉)정책과 관련된 기계류 제품, 기계 부품류, 철강 중간재, 평판 디스플레이 및 센서 등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미루어 추측
- 선진국의 경기침체로 인해 금년 안에 중국의 수출이 회복세로 전환될 가능성은 불확실하므로 중국의 내수 수요에 맞춘 수출 품목군 개발 및 확대를 위한 노력이 필요함.

나. 중국의 무역정책 변화와 대중국 수출

■ 2006년 상반기 이후 중국이 수출규제조치를 취하면서 중국의 수출증가율이 이전에 비해 10%포인트 정도 하락함.

- 2008년 3/4분기 이전까지는 중국정부의 무역규제조치(가공무역규제, 수출 증치세 환급률 인하 등), 위안화 절상의 영향으로 가공무역 수출을 중심으로 수출증가율 하락세가 지속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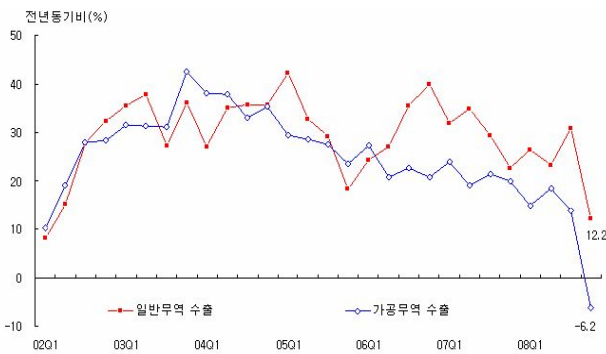
※ 2006년 하반기 이후부터 2008년 상반기까지 중국은 가공무역에 대한 규제도 강화하였으며, 위안화의 대미 달러 환율은 2005년 7월 통화바스켓제도 도입 이후 현재까지 20% 이상 절상됨.

그림 3. 중국의 수출입 증가율



자료: CEIC, 중국해관통계.

그림 4. 중국의 무역방식별 수출증가율



자료: CEIC, 중국해관통계.

- 4/4분기 이후에는 세계금융위기에 따른 세계시장의 수요 위축으로 중국의 가공무역은 물론 일반무역 수출증가율도 급락함.

※ 4/4분기 중국의 수출증가율: 전체 4.3%, 일반무역 수출 12.2%, 가공무역 수출 -6.2%

■ 중국이 수출 및 가공무역 규제조치를 취함으로써 한국, 대만 등 중국 내에서 가공무역 비즈니스 패턴을 유지하고 있는 국가의 대중국 수출이 큰 영향을 받음(표 9 참고).

- 한국의 대중국 수출 중 54.3%(2007년 기준)가 중국 내 가공무역을 위한 수출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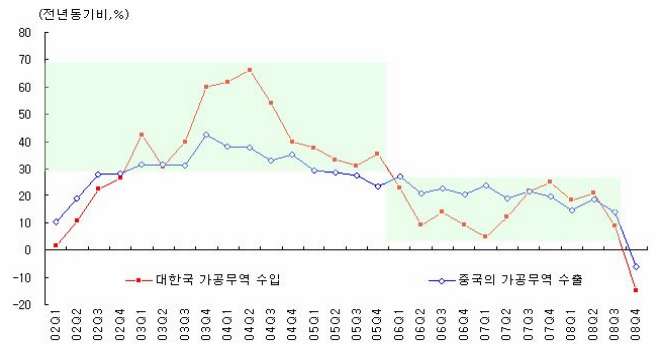
표 9. 주요 교역대상국에 대한 중국의 수입증가율

		(단위: %)				
		중국수입	미국	일본	한국	대만
가공무역 비중(%)		38.6	26.7	44.2	54.3	68.4
중국	2004	36.0	31.9	27.2	44.3	31.2
	2005	17.6	8.9	6.4	23.4	15.3
수입	2006	19.9	21.8	15.2	16.8	16.6
	2007	20.8	17.2	15.8	15.6	16.0
증가	2008	18.5	17.4	12.5	8.1	2.3
	변화율(07→08, %p)	-2.3	0.2	-3.3	-7.5	-13.7

주: 가공무역 비중=가공무역수입/상대국으로부터의 총수입, 2008.1~11월 기준. 자료: 중국해관통계.

- 중국의 가공무역 및 수출에 대한 증치세 환급률 인하는 한국의 대중국 중간재 수출 둔화로 이어짐.

그림 5. 중국의 가공무역 수출과 중국의 대한국 가공무역 수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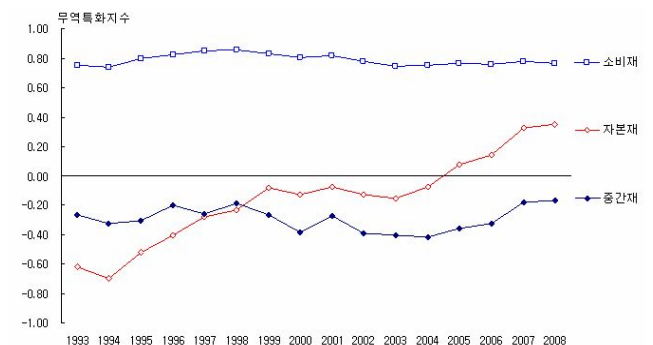
주: 가공무역 통계를 보기 위해 중국해관통계 기준으로 중국의 대한국 가공무역 수입을 한국의 대중국 가공무역 수출로 간주함.

자료: CEIC, 중국해관통계.

다. 중국 산업의 고도화와 수입 대체

■ 중국 산업이 고도화되면서 중간재 분야에서 수입대체 속도가 빨라지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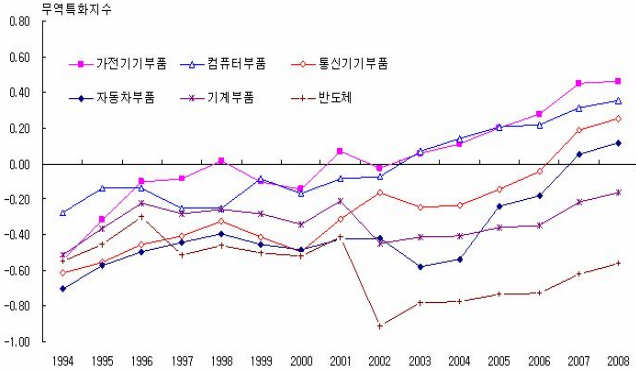
그림 6. 중국의 대한국 가공단계별 무역특화지수



자료: CEIC, 중국해관통계.

- 소비재의 경우 성숙기의 산업단계에 진입하였고, 중간재는 수입대체 속도가 빨라지고는 있으나 여전히 수입대체단계에 있으며, 자본재는 2005년 이후 수입특화 산업에서 수출특화 산업으로 전환되었음.

그림 7. 중국의 주요 부품의 무역특화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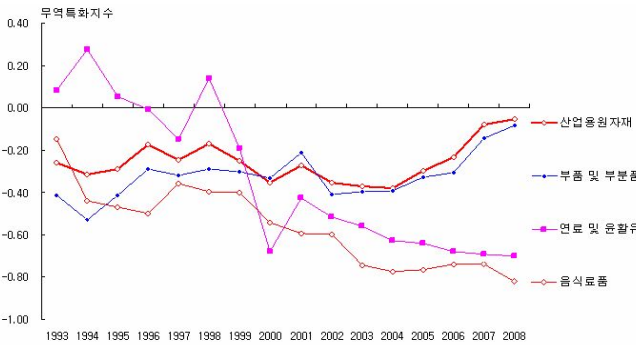


자료: CEIC, 중국해관통계.

- 한국의 주요 대중 수출품목인 가전기기부품, 컴퓨터부품, 통신기기부품, 자동차부품의 경우 중국도 수출산업화 단계에 진입한 반면, 기계부품, 반도체의 경우 여전히 수입특화 단계에 머물러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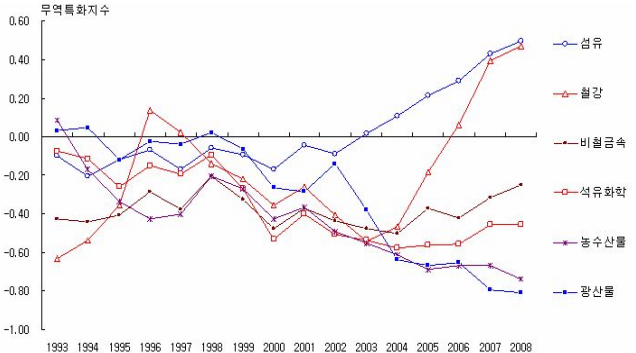
- 산업용 원자재에서는 철강과 섬유제품의 경우 수출특화가 빨라지고 있는 반면, 이외의 대부분의 산업용 원자재에서 수입특화가 나타나고 있음.

그림 8. 중국의 중간재 유형별 무역특화지수



자료: CEIC, 중국해관통계.

그림 9. 중국의 주요 산업용원자재의 무역특화지수



자료: CEIC, 중국해관통계.

라. 재중 한국계 기업의 생산 위축과 기업내 무역 위축

- 한국의 대중국 투자가 감소하면서 한국의 대중국 투자용 설비 수출이 감소함.

- 2008년 중 한국의 대중국 직접투자액(중국 상무부 통계 기준)은 31.4억 달러로 전년대비 14.8% 감소하였으며, 이에 따라 대중국 투자용 설비 수출도 7.5% 감소함.

※ 중국의 2008년 외국인투자 금액은 923.95억 달러로 전년대비 23.6% 증가하였고, 투자건수는 2만 7,514건으로 동 27.4% 감소함.

표 10. 한국의 대중국 투자와 투자용 설비 수출

(단위: 백만 달러)

	대중 투자		투자용 설비 수출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2002	2,721	26.4	1,161	15.3
2003	4,489	65.0	1,740	50.0
2004	6,248	39.2	2,791	60.4
2005	5,168	-17.3	2,539	-9.0
2006	3,895	-24.6	2,117	-16.6
2007	3,678	-5.6	2,287	8.1
2008	3,135	-14.8	2,117	-7.5

자료: 중국 상무부; 중국 해관: KITA.

- 중국 내 외자계 기업의 생산 및 수출 둔화로 대중국 중간재 수출이 급격히 둔화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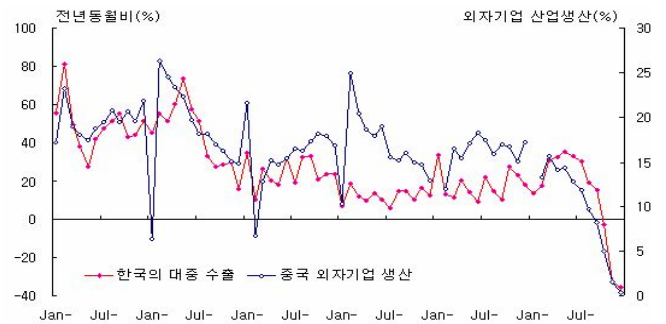
- 한국의 대중국 수출은 중국내 외자계 기업으로의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으며, 특히 재중 한국기업을 향한 부품과 소재 수출비중이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 한국의 대중국 수출의 75%가 재중 외자기업 向 수출임.

- 4/4분기 들어서 중국 내 외자기업의 생산과 수출이 급감하면서 한국의 대중국 수출증가율이 급격히 둔화됨.

※ 4/4분기 중국 외자기업의 수출은 전년동기대비 2.2%, 수입은 12.5% 각각 감소하였음.

그림 10. 중국 내 외자기업 산업 생산과 한국의 대중국 수출증가율



자료: CEIC, 중국해관통계.

- 한국의 대중국 수출은 재중 한국기업을 향한 부품과 소재 수출비중이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현지법인의 생산과 한국의 대중국 수출은 밀접히 연계되어 있음.

※ 한국의 대중국 수출의 48.9%가 재중 한국계 기업으로 향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됨(KIEP 추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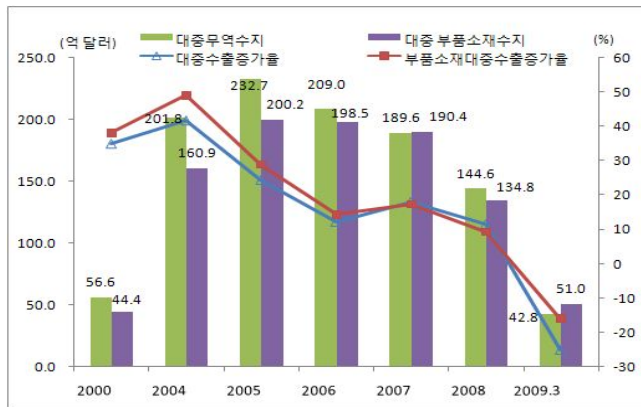
- 단, 2009년 들어 한국의 중국에 대한 부품·소재 수출 부진이 개선되는 긍정적인 조짐이 보이고 있음.

- 한국 전체 대중국 무역수지의 약 90~95% 수준을 차지하고 있는 중국에 대한 부품·소재 무역수지가 2009년 들어 전체 무역수지를 상회하며 수출 둔화세가 완화되는 추세임.

○ 2009년 1분기 한국의 대중국 부품·소재 무역수지는 51억 달러로 전체 대중국 무역수지인 42.8억 달러를 상회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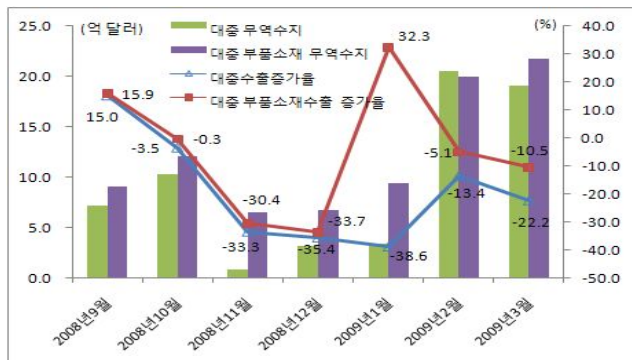
- 2008년 12월까지 한국의 대중국 전체 수출증가율과 같은 움직임을 보이던 대중국 부품소재 수출증가율이 2009년 1월에는 32.3%로 급증하였으며, 2월과 3월의 수출증가율은 감소세이지만 전체 대중국 수출증가율을 상회하고 있음.

그림 11. 한국의 대중국 부품·소재 연간 수출증가율과 수치



주 : 2009년 통계는 1~3월 누계치임.
자료: CEIC, 중국해관통계.

그림 12. 한국의 대중국 부품·소재 월별 수출증가율과 수치



자료: CEIC, 중국해관통계.

-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2009년 들어 중국의 내수부양 관련 부품·소재의 수출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됨.

4. 시사점

- 단기적으로는 내수부양조치에 맞춘 대중국 수출마케팅 강화 전략과 동시에 중국 내 시장보호 움직임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며, 중장기적으로는 중국의 수입대체에 따른 대중 수출 둔화 가능성에 대비하여야 함.

가. 중국의 내수경기 부양책에 맞춘 대중 수출마케팅 강화

- SOC건설과 관련된 자재 및 기계·기계 부품류, 가전하향(家電下鄉)정책과 관련된 가전부품, 중소형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인화와 보조금 지원에 따른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 관련 수출의 확대 가능성이 증대됨.

- 최근 1/4분기를 저점으로 중국경제가 회복국면으로 진입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으며, 중국경제가 회복된다면 중국의 수입증가율 둔화세가 다소 완화될 것으로 보임.

- 이와 관련하여 실제로 지난해 12월부터 중국의 내수부양과 관련된 품목의 대중국 수출이 증가하기 시작한 것으로 보임.

나. 한·중 간 무역마찰 증대 가능성에 대비 필요

- 세계경기 불황에 따른 중국기업의 도산 및 경영 악화로 인해 중국 내에서도 보호무역주의 경향이 확산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한·중 간 무역마찰이 빈번해질 가능성이 매우 높음.

- 최근 중국의 한국산 TPA(대중국 수출 규모 30억 달러)에 대한 반덤핑 조사가 개시된 데 이어, 한국산 석유화학제품에 대한 반덤핑 제소 가능성이 증대되고 있음.

- 동시에 중국은 대외적으로는 보호주의를 반대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으나, 국내경기 부양책에서도 실질적인 바이차이나(Buy China) 정책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 중국과의 통상마찰 가능성에 대한 산관 협동의 종합적인 대응책 마련이 시급함.

다. 중국의 정책 변화에 맞춘 수출상품 다각화 필요

- 최근 중국정부가 수출 둔화에 대한 대응으로 가공무역 규제 완화 및 수출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률 인상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으나, 중장기적으로 산업구조 고도화를 위한 가공무역에 대한 규제가 재현될 가능성이 큼.
- 따라서 가공무역 중심의 대중 수출구조를 내수용 수출구조로 전환하기 위한 노력이 지속되어야 함.

※ 2008년 주요국의 대중국 수출 중 일반무역(내수용) 수출 비중: 전체 50%, 한국 31.4%, 일본 41%, 미국 58%, 독일 68%

- 동시에 중국 내 신성장 분야에 대한 수출품목 개발 및 중국 산업기술 발달에 따른 수입대체를 대비한 기술적 차별화가 시급함.
 - 중국의 신성장 산업(환경보호, 신에너지 및 에너지 절감 분야 등) 관련 대중국 수출상품 개발, 중국의 최종재 산업구조 고도화 과정에서 발생하는 신수요 부품 개발 노력 강화가 필요
 - 중국의 부품 수입대체에 따른 중장기 대중국 수출 둔화가 불가피하며, 이에 대비하여 핵심 부품과 소재 분야의 기술 업그레이드 등 차별화가 시급함. **KIEP**